

<애국가> 작사가에 관한 담론 연구

손민정(한국교원대학교)*,
김효정(대전동서초등학교), 남궁정(인천송원초등학교),
박찬교(한국교원대학교), 박해리(광주진남중학교),
안현지(한국교원대학교), 양고운(한국교원대학교),
옥하영(한국교원대학교), 이고운(한국교원대학교),
임새롬(한국교원대학교), 조주연(한국교원대학교)**

《요약》

<애국가> 작사가에 대한 가설은 세 가지로 나뉘어 거론되어왔다. 첫째는 안창호 작사설, 둘째는 윤치호 작사설, 셋째는 공동창작설이며, 공동창작설은 또한 ‘안창호-윤치호 공동창작설’과 민족지도자들의 공동창작설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가설을 주장해 온 3인의 대표적인 연구가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NVivo12>를 활용하여 코딩작업을 했다. 코딩의 결과로 ‘안창호 작사설’, ‘윤치호 작사설’, ‘공동창작설’,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성’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테마로 두고 논문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과거 사실을 그대로 복구하여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에 두지 않으며, 현재인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함으로써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애국가> 형성과정에 대한 관심과 역사관을 제고하고자 한다.

주제어: 담론, 무궁화가, 안창호, 애국가, 윤치호

* 제1저자, mjson@knue.ac.kr

** 공동저자, 김효정(live1029@naver.com), 남궁정(namgungjeong@naver.com), 박찬교(boboguy@hanmail.net), 박해리(enjoy9175@naver.com), 안현지(ahj1508@hanmail.net), 양고운(wooni22@hanmail.net), 옥하영(h-y1015@hanmail.net), 이고운(2kwoon@naver.com), 임새롬(beethovenian@daum.net), 조주연(wndus0414@daum.net)

1. 서론

현행 음악교과서의 맨 첫 장에는 <애국가>가 ‘안익태 작곡’이라는 표기만 붙여진 채 실려 있다. 작사가에 대한 관심은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등 세간의 주목을 꾸준히 끌어 온 것¹⁾에 반해, 실제 음악교육현장에서는 그다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에, 초·중등 교사를 비롯한 음악교육과 대학원생, 역사교육과 교사교육자 및 음악교육과 교사교육자를 아우르는 연구진이 2018년 3월에 구성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변동을 거쳐 2018년 12월 20일, 코딩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는 11인이 참가하였다. 연구진이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애국가> 작사가 규명’에 초점을 두었으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의 목적을 ‘<애국가> 작사가 담론 해석’으로 전환하였다. 연구진의 관점과 목적이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작사가 규명을 하려 했을 때에는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과거 사실의 진위를 밝히려 하였다면, <애국가> 작사가에 관한 현재인의 담론을 ‘문화현상’으로 접근하면서 ‘인류학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애국가> 담론을 통하여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현재인의 해석을 읽어 보고자 한다. 음악교육현장에서 <애국가> 작사가에 대한 담론을 현재진행형의 복합적 문화현상으로 접근함으로써 <애국가> 작사과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을 인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애국가> 작사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애국가>는 앞 소절과 후렴이 각기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모든 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후렴이 처음으로 온전히 발견된 것은 1899년 6월 29일자 『독립신문』이며, 앞 소절이 포함된 전체 가사가 발견된 것은 1908년 윤치호 역술, 『찬미가』(광학서관, 1908년 6월 25일 발행)의 재판본이다. 남겨진 기록물로 추정하자면, 후렴이 소개된 시점과 전체 가사가 온전히 소개되는 시기 사이에는 대략 8여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다. 논의가 종결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두 자료 모두 불완전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1899년 기사에는 작사를 비롯한 곡조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으며, 1908년 찬미가의 경우에는 초판이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 ‘역술’이라는 용어가 작사가의 존재를 불명확하게 만든다.

애국가 작사가 규명의 움직임은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의 <애국가> 작사자 조사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오늘에 있어서는 세 가지 가설로 나뉘어 전해진다.²⁾ 첫째는 안창호(1878-1938)가 만들었다는 주장이며, 둘째는 윤치호(1864-1945)가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며, 셋째는 공동창작설이다.³⁾ ‘공동창작설’은 또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

1) 박대현. (2015).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애국가 작사 미스터리>의 논쟁에 대한 고찰. **근대서지**, 11. 469-470.

2) 김도훈. (2018). 애국가 작사가 관련 논쟁에 대한 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4.. 286.

는데 첫째는 안창호와 윤치호가 공동으로 창작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안창호와 윤치호를 비롯한 민족지도자들의 공동창작을 주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진은 <애국가> 작사가 규명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각 주장에 있어서 근거로 채택되는 자료가 다르며, 어떤 경우에는 같은 자료를 두고서도 해석을 달리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애국가> 작사가에 대한 연구가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증거나 근거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담론’을 해석해야 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현재인의 [과거] 재구성’이다. ‘<애국가> 작사가에 관한 담론’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현재인의 재해석 양상이다.

‘<애국가> 작사가에 관한 담론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은 <애국가> 연구가들과의 인터뷰에서 얻어진 ‘<애국가> 작사가에 관한 담론’을 소프트웨어 <NVivo12>를 활용하여 코딩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몇 개의 조로 나누어서 다양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나 <애국가> 작사가 연구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판단되어지는 세 사람을 대표저서의 충실도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2018년 4월 5일 A와의, 2018년 5월 14일 K와의, 2018년 5월 24일 L과의 인터뷰의 내용을 연구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 해석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NVivo12>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서 ‘코드(code)’라고 말해지는 ‘주제어’는 <NVivo12>에서 ‘노드(node)’라고 명명되는데, 이 ‘노드 분석’에 있어서 두 가지 규칙을 정해서 실시하였다. 첫 번째 규칙은 노드 분석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 규칙은 노드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인터뷰를 실행했던 당사자가 반드시 참가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NVivo12>에 입력하여 3음절 이상의 단어 빈도수에 근거한 ‘단어구름(word cloud)’을 도출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애국가’, ‘윤치호’, ‘안창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참고하여 8개의 노드를 선정하였다. ‘안창호인 이유’, ‘안창호가 아닌 이유’, ‘윤치호인 이유’, ‘윤치호가 아닌 이유’, ‘민중채택설’, ‘김인식설’ ‘공동창작설’,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성’이다. 이 8개의 노드를 성격적으로 묶어서 언급 횟수에 따라 노드를 선택하여 ‘안창호 작사설 담론’, ‘윤치호 작사설 담론’, ‘공동창작설 담론’,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성 담론’으로 구분하여 논문을 구성하고자 한다.

3) 안창호 작사설과 윤치호 작사설의 논의는 가나다 순으로 진행됨.

1. 안창호 작사설 담론: A와 L의 담론을 중심으로

안창호 작사설을 주장하는 담론은 A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는 ‘안창호인 이유’이며 두 번째는 ‘윤치호가 아닌 이유’이다. 우선, 안창호가 작사했다는 근거로 다섯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홍사단의 ‘<애국가> 작사자 규명위원’이었던 임채승이 건네준 안창호의 ‘습작 노트’와 그 속에 포함된 <무궁화2>이며, 두 번째는 안창호가 본인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윤교장이 지은 걸로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 세 번째는 ‘시어’와 ‘시상’, 네 번째는 ‘내가 지었다’라는 안창호의 말을 들었다는 증언, 그리고 마지막은 ‘무궁화’를 국화로 보급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였던 독립운동가 남궁억(1863-1939)과의 친분이다. 남궁억과의 친분은 윤치호 작사설을 주장하는 K와의 인터뷰에서도 등장하는데 그 때에는 윤치호와 사돈인 것이 언급된다.

A는 안창호의 습작노트 <무궁화2>를 발견했던 것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버금가는”⁴⁾ 발견이라고 표현하면서 <무궁화2>를 안창호 작사설의 강력한 증거라 생각한다. 현행 <애국가>의 가사를 온전히 지니고 있는 <무궁화2>가 도산의 자필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안창호의 『애국창가집(도15-31)』의 제14편 <무궁화>는 자동적으로 <무궁화1>이 되며 정황상 안창호의 작품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A는 자신의 논리에 대해서 ‘인문과학적 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부연한다. ‘인문 과학적 방법’이라는 용어는 총 9번 등장하며 맥락은 다음의 담론에서 잘 드러난다.

A: 사실상 제가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로 국회방송에서 독립운동사를 맡아서 방송 인터뷰를 좀 해 달라 해서 한 20여 일 간 제 방송이 나갔어요. 그때 내가 전제로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독립운동사도 100% 팩트(다). 100% 팩트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증언하는 것 중에서 다소 2% 부족한 것 있다. 이걸 요즘 시대용어로 학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자연과학적 방법의 측면, **인문과학적 방법**의 측면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증언하는 부분에 **인문과학적 방법**도 독립운동 해설에 있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서론을 그렇게 꺼내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듯이 자연과학적 방법 안에 **인문과학적 방법**이 이제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즐겁게 용인해야 학문의 보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학문의 발달사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습작 노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술사(oral history)’에 의한 경험이나 기억의 재현 이기에 이를 ‘인문과학적 방법’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구술

4) 안용환. (2016). **독립과 건국을 이룩한 안창호 애국가 작사**. 서울: 청미디어. 64.

사를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구술사가 “‘왜곡된 발화’를 찾아내려 노력하기보다 ‘회상된’ 과정과 배경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연구자, 즉 분석자의 자기 성찰”이 깊게 관여될 수 있다고 말한다.⁵⁾ 사뭇 기존의 역사학자들의 실증주의적 관점과는 상충되는 듯하지만, “역사에서 객관성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객관성’이며, 역사의 진실이란 다양한 진실 중에서 유력한 하나의 진실 혹은 ‘가능성으로서의 진실’로 봐야 할 것”⁶⁾이라는 중간자적인 관점을 고려한다면 A의 ‘인문과학적 방법’에 대한 근거를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문헌연구에서 벗어나 담론 연구를 아우르는 이유 역시 구술사에서 제안하는 ‘민족지적 기술사(ethnographic oral history)’를 통해서 <애국가> 작사가에 대한 인식의 총체를 이해하려 함이다.⁷⁾ 따라서 안창호설을 지지하는 간접증인들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기억에 담긴 경험이나 의도를 파악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근·현대사에 대한 복합적인 기억’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안창호 작사설에 관한 구술사에 있어서 A는 근거를 두 가지로 제공한다. 첫째는 ‘윤치호의 명성’이며 둘째는 ‘안창호의 시상’이다. A는 ‘네임 벨류(name valu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독립신문』과 『신한민보』 등의 자료에서 윤치호 작사로 발표되었던 데에는 윤치호의 명성이 작용했다고 해석한다. 그런가 하면, 안창호 자신이 <애국가>의 시어 하나하나를 착상해가는 과정은 여러 명의 선천예배당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창호설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안창호의 시상’이다. <애국가>는 1907년 즈음에 원형이 갖추어지게 되는데, 선천예배당 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07년 2월에 귀국한 안창호는 3월 초순에 구체적인 시상에 따라 작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창호와 나누었던 대화를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전해진다.⁸⁾ 게다가, 이후 일제강점기에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게 되면서 완성하게 되는데 대한인국민회를 비롯한 해외 독립운동단체에서도 그 중심에는 안창호가 의사결정권자로 작용했다는 것이다.⁹⁾ 수많은 버전의 애국창가 중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택되어지게 되는 <애국가>의 가사를 완성해 나감에 있어서 수십 년에 걸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안창호라는 말이다.

한편, ‘윤치호가 아닌 이유’에 대한 담론은 안창호 작사설을 주장하는 A와 공동창작설을 주장하는 L의 담론에서 혼합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1907년 윤치호 작’이라고 적힌 윤치호 친필 <애국가> 가사지가 실제로는 1945년에 쓰였다는 것, 둘째는 에모리 대학(Emory University)에 보관되어 있는 윤치호 친필의 <애국가> 가사지에

5) 정혜경. (2015). 구술사: 기록에서 역사로. **한일민족문제연구**, 28, 254.

6) 이용기. (2009). 역사학, 구술사를 만나다-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본 구술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 71, 316.

7) 함한희. (2010). 구술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구술사연구**, 1, 32.

8) 윤정경. (2015).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시상과 도산 안창호 (중보판)**. 서울: 흥사단, 31.

9) 이명화. (1999). 애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 **실학사상연구**, 10·11, 661.

‘1907년 윤치호 작’이라는 문구가 허위일 수 있다는 것, 셋째는 『찬미가』에 적혀 있는 ‘역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냐는 것, 네 번째는 꼼꼼히 기재되어 있는 윤치호의 일기 속에 <애국가> 관련 언급은 부재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무궁화가>이든, <애국가>이든 특정인의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 고유성)’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음의 네 가지 노드는 A의 인터뷰에서, 다섯 번째로 코딩되어진 ‘오리지널리티’는 L의 인터뷰에서 추출되어졌다. A의 담론을 단어구름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윤치호’, ‘윤치호가’라는 단어가 중심에 가장 크게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A의 담론에 있어서 윤치호설에 대한 반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A 담론의 단어구름

한편, ‘오리지널리티의 부재’에 대한 L의 담론은 사실상 안창호설과 윤치호설을 모두 부정하는 관점으로써 이 때 ‘관용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관용어’는 총 3번 언급되며 다음에서 L의 해석이 가장 잘 드러난다.

L: 미국에서 신민회가 왔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런 국민 국가를 세우려면 이제는 황제의 백성이 아니라 국가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황실이요’ 이런 가사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사 바꾸기 운동을 했는데, 이 바꾸는 것도 뭔가 익숙한 거로 찾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말은 우리 역사에서요 오랜 세월 변치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관용어** 같은 거예요. 이걸 누구의 창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도 이런 말을 자주 써요. 내가 변치 않는 어떤 충성을 보일 때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는 영원하게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면 일본의 기미가요는 이끼가 되고 이런 가사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일종의 **관용어** 같은 거예요.

<애국가>의 가사가 신민회에서 변경되기 시작하고 1930년대에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개입이 있었기에 어느 누구의 특정 작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되어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등의 어구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어진 관용적 표현이므로 이것 또한 특정인의 시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L은 후렴에 있어서는 윤치호의 개입을, 3~4절에 있어서는 안창호의 창작을 확신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어느 특정인의 창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윤치호 작사설 담론: K의 담론을 중심으로

윤치호 작사설을 주장하는 K의 담론은 크게 8개의 노드로 나타나는데, 세 갈래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독립신문』, 『신한민보』, 『찬미가』 및 자필 가사지 등의 기록물에 입각한 실증적 근거이며, 둘째는 한영서원 출신들의 증언, 셋째는 ‘인간으로서의 윤치호’에 대한 이해이다.¹⁰⁾ K에 따르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¹¹⁾에도 불구하고 윤치호 작사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윤치호의 친일행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인간으로서의 윤치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의 윤치호 작사설 담론에서 가장 강한 어조로 주장되는 것은 <무궁화 노래>에 대한 『독립신문』 기사이다. 1899년 6월 29일 『독립신문』에서는 배재학당의 방학예식에서 <무궁화 노래>를 불렀다고 하며, 구체적인 작사가나 곡조의 설명 없이 가사만 소개한다. 온전한 후렴을 찾을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다. 그런데 <무궁화 노래>에 대한 언급은 이에 앞서 1897년 8월 17일 『독립신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독립회관에서 개최된 ‘대조선 개국 505회 기원절 행사’에서 배재학당이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1897년 8월 13일 『독립신문』 영문판 ‘Editorial Notes’에는 작사가와 반주가 소개되는데 계관시인 윤치호(the poet laureate[laureate의 오타] of Korea Mr. T. H. Yun)가 작사한 <National Flower>를 M. F. Scranton 여사의 <Auld Lang Syne>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불렀다고 적혀있다. 서재필의 영문 기사는 윤치호 작사설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해석되기도 한다.¹²⁾ 그러나 문제는, 이 <무궁화 노래>가 온전히 제시되지 않아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1897년 독립회관에서 노래의 가사는 ‘우리나라 우리님군 황턴이 도으샤’로 시작되어 있으며, 1899년 방학예식에서 불렀던 노래의 가사에는 ‘우리나라 우리님군 황턴이 도으샤’가 4절에 일부 포함되는가 하면 ‘성자신손 오백년은 우리 황실이요’로 시작한다. 게다가 “<무궁화 노래>라는 제목에서나 가사에 나타난 정신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¹³⁾라는 해석에 따르면 <무궁

10) K가 윤치호 작사설이 인정되지 못했던 이유로 이승만의 정치성, 김구의 정치성, 1960년대의 민족주의 열풍, 윤치호의 친일 등을 거론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따로 다루겠다.

11) 장사훈. (1974). [2] 애국가고, 여명의 동서음악. 서울: 보진재.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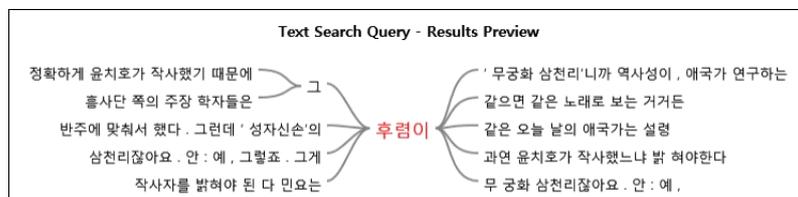
12) 김도훈. (2018). 전계서. 289.

화 노래>는 일종의 민요와 같아서 구전되면서 형성되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이 자료에 대하여 K는 ‘아리랑’과 ‘후렴’의 논리로 접근한다. 오랫동안 <아리랑>을 연구한 K는 <애국가>를 일종의 민요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렴’이 작품의 정체성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애국가>를 민요에 비유하며 <무궁화 노래>의 작사자로 기록된 윤치호가 <애국가>의 작사가라고 판단한다면 <무궁화 노래>가 ‘집단적 정서’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해석해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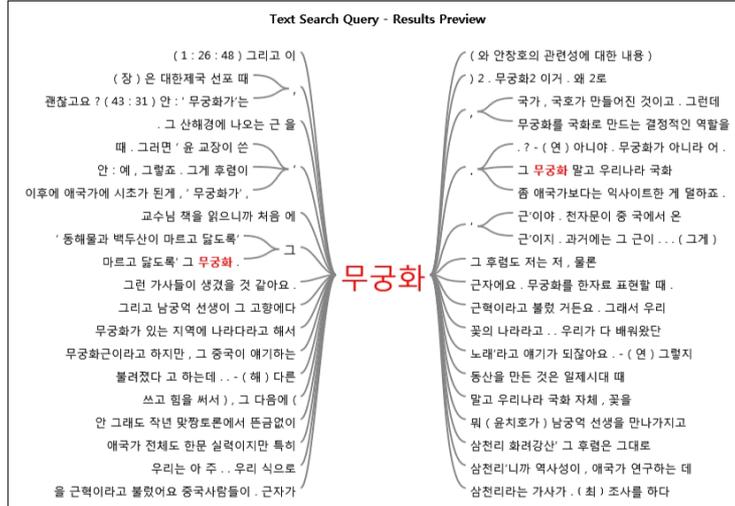
K: 객관적인 학자들이 <애국가>를 이야기할 때 **후렴**의 작사자를 밝혀야 된다. 민요는 **후렴**이 같으면 같은 노래로 보는 거거든. 말하자면은 **아리랑**이야 **후렴**은 다 같잖아. <애국가>도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는 것은 이 <애국가>가 작사되기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일부에서만 배재학당의 기록이나 이런 걸 보고 독립문 정초식 때 ‘윤치호가 작사했다.’ 라고 돼 있잖아. 근데 근거가 없이 이야기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홍사단 쪽의 주장 학자들은 그 **후렴**이 과연 윤치호가 작사했느냐 밝혀야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게 문제였지. 그랬는데 내가 서재필 박사의 독립신문 영자신문 당일 기록에 오늘 부른 이 ‘national flower’ 라는 노래는 계관시인 윤치호가 작사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무궁화가가 정확하게 윤치호가 작사했기 때문에 그 **후렴**이 같은 오늘날의 <애국가>는 설령 오늘날의 <애국가> 작사자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받은 윤치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1907년 자필 가사지가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지...

3인의 담론에서 3음절 단어 ‘후렴이’와 ‘무궁화’에 대한 언급을 ‘단어나무(word tree)’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의 속성상 3음절 미만의 글자로는 검색이 불가능하기에 ‘후렴’ 대신 ‘후렴이’로 검색하여 [그림 4]가 도출되었으며, 후렴에 대한 개념의 맥락을 찾고자 ‘무궁화’를 검색했을 때에는 의외로 ‘국화’로서의 무궁화, 그리고 두 사람의 독립운동가 ‘남궁억’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림 5]에서 드러났다.



[그림 4] ‘후렴이’ 로 도출된 단어나무

13) 노동은. (1994). 애국가 가사는 언제, 누가 만들었나. **역사비평**, 27. 22.



[그림 5] ‘무궁화’ 로 도출된 단어나무

K의 담론을 노드로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은 빈도수(11회)를 보인 것은 ‘인간으로서의 윤치호’에 대한 언급이다. 3인의 인터뷰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언급횟수를 보였던 하위노드였다. 말하자면,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던 노드(7회)는 ‘민족 지도자의 합작설’이며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던 노드(5회)는 ‘안창호의 시어’, ‘1955년도 국사편찬위원회의 판단(11:2로 부결되었던 사실)’, ‘민중채택설’이다. 빈도수만으로 해석하자면 K가 윤치호 작사설 담론에 있어서 윤치호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가족이 많아서 망명을 하지 못한 것, 노비를 해방시킨 것, 부인에 대한 극진한 글을 썼다는 것, 권위적이지 않았던 평신도로서의 윤치호 등에 대하여 언급되었다.

K: 그러니까 나는, 안타까운 거는 윤치호가 **가족이 많았어(아-자식도 많고)**. 오늘날 우리가 윤보선 대통령이 사촌이라고.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와 윤치호의 아버지는 형제란 말이지. 그 가족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리고 윤치호 자체도 부인이 네 명이 있었어. 근데 그 축첩이 아니야. 죽고, 죽고, 죽어서 이렇게 된 거야. 윤치호는 우리나라에서 고종이 노예해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3일 만에 자기 **노예를 다 해방시킨 사람**이야. 그만큼 그 사람은 지식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실천을 한 사람. **부인에 대한 지극한 글을 쓴다**구. 자기가 현재 부인에 대해서. 어. 죽으니까 다시 결혼하는 거지. 자식이 많다보니까, 부인이 없으면 전처의 아들딸을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 시기에는. 그니까, 어, 윤치호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축첩을 얘기하지만 윤치호가 축첩을 했던 얘기는 안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소생이 많아. 15명인가 그렇게. 그걸 생각하면은 왜 많은 사람이 망명하자 그랬지. 당신이 망명해야 된다. 망명

해서, 임시정부 우리가 세우자. 그, 어-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나오고, 어- 고 직전이지.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할 때 투서가 막 나돌잖아. 윤치호가 대통령으로 고종을 폐위시키고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막 뿌리잖아. 그만큼 그 시기에도 국제 감각 이런 면에서는 윤치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윤치호는 참으로 바보 같아, **바보일정도로 권위를 포기한 사람**이야. 어. 우리나라에 감리고 신자 1호잖아. 세례를 받은 1호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가오[권위]를 세우려면 기독교에서는 최고가 뭐야. 장로회서부터 목사가 되는 거거든. **평신도로 끝까지 살았거든.**

덧붙여, K는 윤치호의 친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길게 이야기하였다. ‘권세를 위한 친일’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지식인의 나약한 선택’이었음으로 해석하며 안창호와의 긴밀한 관계, 서북파에 대한 관대함, 해박한 지식과 명망, 교육자로서의 열망 등에 대하여 심정적으로 설교하였다.

윤치호 작사설을 뒷받침하는 담론에는 ‘안창호가 아닌 이유’에 대한 근거로 2개의 노드가 도출된다. 첫째는 이광수의 『도산 안창호』에서 ‘애국가는 선생님이 지으셨어요?’라는 질문에 안창호는 빙그레 웃기만 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안창호가 스무 가지가 넘는 시가를 발표하면서 <애국가>만은 발표하지 않았던 이유는 안창호의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노드, ‘『태극학보』에 대한 언급’은 첫 번째 노드의 연장선에 있다. 안창호가 ‘애국생’이라는 필명으로 <애국가>를 1808년 2월 24일 『태극학보』에 발표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안창호의 <애국가>는 현행 <애국가>와는 다른 가사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3. 김인식설, 민중채택설, 공동창작설: L과 K의 담론을 중심으로

김인식에 대한 언급은 L과 K의 담론에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L과 K가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흥미롭게도 김인식의 개입에 대하여 두 사람 모두 긍정적으로 언급한다. K의 경우는 김인식이 ‘내가 작사를 했다’라고 밝혔던 행동이 윤치호의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L은 김인식을 비롯한 다양한 지도자들이 <무궁화가>를 전파하는 교육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김인식에 대한 K의 담론은 아래에서 잘 드러난다. 이외에도, K는 김인식이 서양음악을 가르칠 수 있었던 극소수의 지식인이었음을 강조하는데 이 점 또한 ‘지식인으로서의 윤치호’에 대한 존경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겠다.

K: 당사자가 쓴 말이든 쓴 글이든 당사자가 한 말이든 그게 1차 증거 아니야. 그런데 많은, 최병헌이든 김인식이든 여러 사람 중에, 글로 **내가 작사했다고 쓴 사람은 윤치호하고 김인식이야.** 김인식은 <무궁화가>를 2절을 수용했잖아. 자기가 2절을 작

사했지. 그러니까 김인식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 시기에는 진명여학교 같은 데서는 선생이 가르쳐주면, 작사가가 누구냐 하고 배우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어. 선생님이나 내가 작사한 거다, 내가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 시기엔 누구도 묻지 않았지만 김인식으로 알았던 거지. 제자들은. 김인식은 두 절은 <무궁화가>를 썼고, 두 절은 자기가 작창을 한 거기 때문에, 작사를 한 거기 때문에. 김인식은 적어도 오늘날의 <애국가> 가사는 아니지만, 전단계의 <무궁화가>는 얘기할 근거가 되는 거지. 그러나, 윤치호는 비록 1945년이지만, 자필로 내가 작사를 뭐뭐라고 했잖아.

L의 담론에서 언급되어지는 김인식은 K와 다른 맥락에서 등장한다. <무궁화가>는 민요처럼 널리 구전되었기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으며, 특히 신민회가 ‘애국가 운동’을 벌이면서 수차례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개작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성’이라는 용어를 거듭 사용하면서 <애국가>가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은 김인식에 대한 L의 담론 중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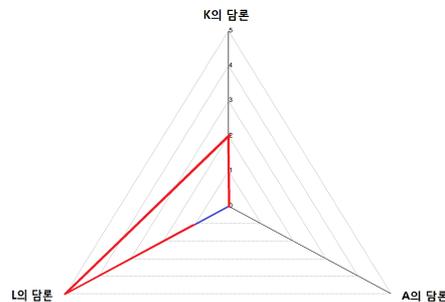
L: 사람들이 막 <무궁화가>는 너무나 열심히 부르니까. 그거죠. 왜 이런 논란이 있는가. 분명하다면 논란조차가 없었을 텐데 논란이 있다라는 자체는 <애국가> 가사가 누구 작사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오늘날과 같은 창작 개념의 저작 의식이 있었다면 누구 작품이다 하고 끝나는데. 그런 것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신민회가 <애국가> 운동을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고, **김인식 선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또 다 참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애국가>들을 지었고.** 김인식 선생님은 진명학교나 보성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 노래를 전파해서 그 쪽 학생들은 김인식 선생님이 작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김인식 선생님의 그 노래는 신흥무관학교에서 불러요. 근데 다 그분들은 그 시대 때의 그 의식으로서는 내가 작사자다라고 후손한테 이야기 했고 후손은 이제 그걸 이제...

L와 K의 담론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공통점은 ‘민중채택설’이다. 이 역시 궁극적인 귀결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무궁화가>와 <애국가>를 민요로 인식했기에 L은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K는 ‘민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민중의 선택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L에 따르면, <애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은 ‘사람들’의 선택이었으므로 작사자를 규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고, K에 따르면, <애국가>는 민중의 선택이기 때문에 작사자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K가 ‘민중채택설’을 강조하는 이유에는, <애국가> 작사자를 규명함에 있어서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도를 내포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K가 적극적으로 ‘민중’을 언급하는 부분이다. <애국가>가 만들어졌던 해로 추정되어지는 1907년에는 윤치호가 친일을 하지 않았으며, 만일 친일을

했다하더라도 민중은 몰랐으며, 더군다나 민중들은 안창호의 존재를 잘 알지도 못했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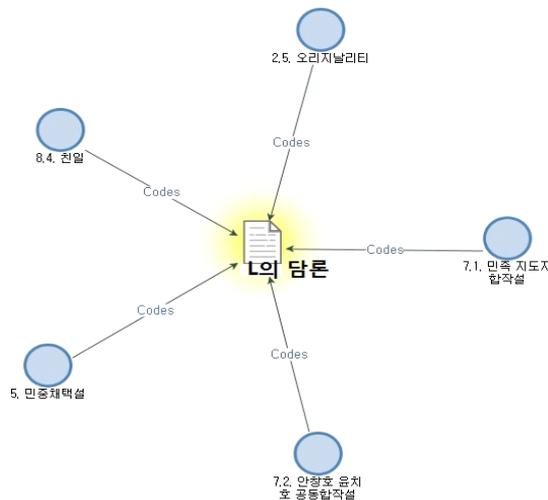
K: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애국가>랑 아리랑은 제도권의 노래가 아니야. 먼저 **민중**의 것이었고 그것이 제도권의 노래가 된 거야. 아니 윤치호나 안도산이, 아이 고종이 지으라고 지었겠어? 총독부가 지으라고 해서 지어졌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아 <애국가>, 나라의 노래야. 누가 지었을까?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나는 그거야. 윤치호가 했거나 도산이 했건 관계없다. 그러나 작사자는 명확히 구분해 놓자. 아. 왜. 그래야만 이 노래에 기본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라는 거. 만일에 윤치호가 작사했다면은. 그 시기에는 윤치호가 친일이라는, 친일을 안했든. 그 친일을 **민중**들이 몰랐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근데 도산이 했다 하더라도, 도산이 1907년이라고 하는 거는, 20대 말이야. 그 사람을 **민중**들은 알지를 못했어. 일부의 정치가들만 알았지. 그러니까 도산이 지었다 하더라도 그때 **민중**들은 도산이 누구냐라고 하는거... 도산의 사상을 갖고 그 노래를 채택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런 나라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 모두 애국을 해야 된다. 그러니 노래도 무기가 된다. 그래 그 노래 가지고 애국하자. 이거야. 이거니까 작사자는 두 번째인 거지. 왜 그 시점에 **민중**들이 이 노래를 택하게 됐느냐 하는 게 우선 해결해.

이와 같이, L과 K의 담론이 표면적으로 유사하게 읽힐 수 있는 것은 ‘행렬 코딩 (matrix coding)’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도출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빨간색 굵은 선은 ‘민족 지도자 합작설’에 관한 언급이며 파란색 가는 선은 ‘안창호-윤치호 공동합작설’에 대한 언급이다. A의 담론에서는 공동창작설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반해, K의 담론에서는 ‘민족 지도자 합작설’의 가능성이 2번 언급되었으며, L은 ‘민족 지도자 합작설’의 가능성을 4번, ‘안창호-윤치호 공동합작설’의 가능성을 1번 언급하였다. 하지만 L은 K와는 달리 특징인의 작사설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그림 6] 3인의 담론에 나타난 ‘공동창작설’ 노트 분포도

L의 담론을 코딩했을 때 도출되는 노드는 ‘친일’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면 결국 ‘민족지도자 합작설’, ‘안창호-윤치호 공동합작설’, ‘민중채택설’, ‘오리지날리티의 부재’로 나타났으며, 특정인의 작사설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도형으로 추출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L의 담론에서 도출된 노드

L의 담론에 있어서, <애국가> 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지도자들이 <애국가>를 만들어가면서 추구했던 애국심과 역사의식’이다. <애국가>를 만들고 보급했을 당시 윤치호에 대한 안창호의 생각, ‘국민가’에 대한 안창호의 의도에 대하여 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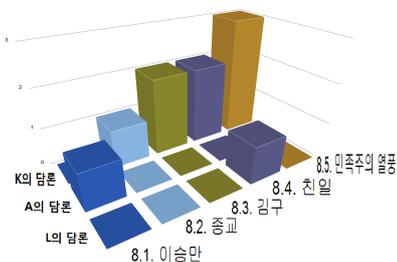
L: 제 결론은 이 <애국가>의 작사자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우리가 <애국가>가 갖고 있는 역사에 비해서 너무 무의미한 거죠... 실제로 대외적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인제 윤치호 선생님을 신민회의 회장을 모시고, 풍령의 대성학교에 대판 교장이라고 있어요. 실제로는 안창호가 교장이지만 윤치호를 내세운 거죠. 그래서 윤치호가 갖고 있는 명망, 그러니까 윤치호는 중국어도 잘하고 또 미국 애틀란타 에모리 대학이라는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당시로서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대한 제국의 학부를 운용해본 경험이 있고 실제로 대한 제국의 <애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관여도 했고. 그리고 독립협회에 있으면서 그 당시 <무궁화가>가 처음으로 불려질 때, 이 <무궁화가>도 확실히 윤치호가 지었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대중들에게 불려질 때 이게 누구 작사다 이

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 때는 아마도 그게 우리 한국이 그런 의식보다는.. 안창호는 그런 말은 하거든요.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다 하면은 누구의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노래가 되니까 그런 거 없이 마치 포크송과 같이 그 민요가 내려올 때 **누가 작사한지는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이 전부다 노래를 부르는**. 예를 들면 에델바이스가 누구 작곡인가요? 그렇지만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에델바이스를 부르며 국민 의식을 불러일으키듯이, 그런 의식을 한 거예요. 상당히 창가가 갖고 있는 영향력과 그 힘을 안창호가 알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국민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무궁화라는 미주에 소개를 하고 그걸 윤치호 작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창호라는 사람이 거짓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굉장히 필생의 화두로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항상 <애국가>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해요. ‘이거 내가 했어’,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냥 웃는다던가... ‘선생님이 이거 작사하셨어요?’ 하면, 웃는다던가,

오늘날 <애국가> 작사자를 가리면서 안창호설과 윤치호설이 분리되어 갈등을 빚는다면 안창호와 윤치호가 공동으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고 노력했던 구한말의 시대정신과는 분명 상치된다고 할 수 있다. 각 가설의 담론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현재적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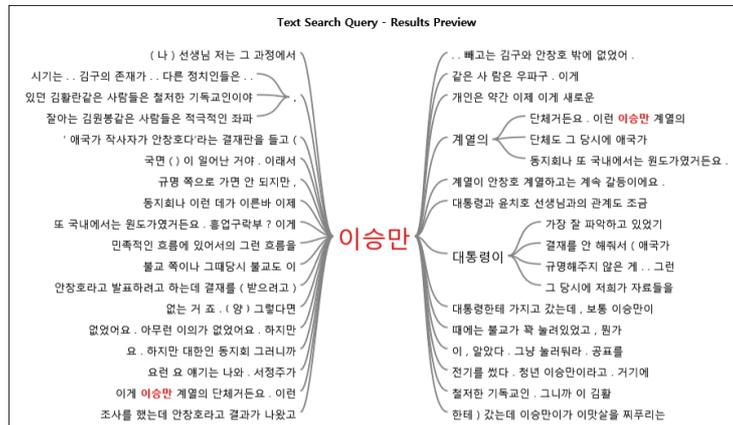
4.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성 담론

마지막으로, <애국가> 작사가 담론에서 ‘<애국가>를 누가 작사했는가’에 대한 담론을 제외한 부분은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성’의 하위노드로 ‘이승만’, ‘종교성’, ‘김구’, ‘친일’ 그리고 ‘민족주의 열풍’이 도출되었으며, 3인의 담론에서 어떻게 분포되는지는 [그림 8]과 같은 ‘행렬 코딩(matrix coding)’에서 잘 드러난다. K의 담론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가 하면, A와 L의 관심 영역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K는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성이 <애국가> 작사설 담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여기는 것이며, 특히 윤치호 작사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림 8] 3인의 담론에서 나타난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성’ 분포도

우선, ‘이승만’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자. [그림 8]에서는 K의 담론에 ‘이승만’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종교’와 ‘민족주의 열풍’에 대한 담론에 포함되어 있다. ‘이승만’이 언급되어지는 맥락은 [그림 9]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맥락을 종합하자면, A와 K는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의 결정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정치적인 개입이 작용했다고 본다.



[그림 9] ‘이승만’ 으로 도출된 단어나무

K는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가 윤치호 작사로 결정하지 못한 것을 “이승만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단언하며, 내용적으로 기독교적 정서를 담고 있는 <애국가>의 작사자를 윤치호로 공표하게 될 경우 기독교 친일에 대한 반발이 불교계를 비롯한 다른 종교계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이승만 정권이 의도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애국가> 작사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는 말이다.

그런가 하면, A의 담론에서 ‘이승만’은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진다. 이승만과 안창호는 ‘악연’이었다는 것이다. A는 안창호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안창호 작사설을 묵인했다고 주장한다. A의 담론 중 ‘이승만’이 언급되는 맥락은 다음과 같다.

A: ...안창호하고 이승만하고 악연이 많아요. 악연. (이승만이) 하와이에, 미주에 있을 때 독립기금 모금한 거, 그거 유용, 유용을 이승만이가 어느 정도 했어요. 그걸 따지고 들어간 게 안창호였어요. 굉장히 험악했죠.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대통령했잖아요. ‘미국이 또 위임통치, 한국을, 조선을 위임통치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했잖아요. 탄핵을 한 이후에도 ‘내가 대통령이야’ 하고 파리, 뉴욕, 해외에서 ‘내가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이 명함을 돌려가지고 자꾸 하는

거라. 그걸 ‘이래선 안 되겠다’ 임시정부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안창호 네가 이승만이 대통령직 수행을 못하도록 썰기를 박아라’(한 거예요). 그 썰기를 박은 것이 또 안창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창호하고 이승만이 **악연**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악연**이예요.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성’으로 다루어지는 다음 주제는 ‘김구’다. [그림 8]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김구에 대한 언급은 L의 담론에서도 나타난다. L에 따르면, 김구가 충청 임시정부에서 <애국가> 가사집을 출간했을 때 주석으로서 안익태 작곡의 현행 <애국가>를 소개했고 그 때 작사자를 ‘일명(佚名: 이름이 사라짐)’으로 기재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특정인의 가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동일한 사실을 두고 K는 다르게 해석한다. K에 따르면, 김구는 윤치호가 작사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마 친일파가 작사자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친일’이라는 단어는 K의 담론에서 가장 자주 나타났다. 친일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전에는 윤치호를 친일파로 보지 않았으며 친일 행적도 30년대 말부터인 것을 강조한다. L은 이 점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데, 아래의 인용문에서 잘 드러난다. 일제가 ‘황민화’를 내세웠던 193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친일’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K가 ‘인간으로서의 윤치호’를 강조했던 담론과도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L: 사실은 윤치호가 잘 견뎠어요. 견뎠는데 근데 **황민화 시대**가 문제야. 이 **황민화 시대** 때는 우리가 사실 주의해야 할 것이 이 시대 때는 일본이 어느 정도 민족주의를 인정을 했는데. 30년대의 만주를 침략하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할 때에는 조선과 일본은 그야말로 ‘하나다’라고 하는 거를 외쳤어요. 왜냐하면 전선이 확대되면 조선인들도 일본 천황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원래 조선과 일본은 차별적인 존재이고 하는 것들을 없애야지만 된다고요. 그래서 애네들이 **황민화**라는 정책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 전에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인 교육과 조선인 교육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학교인데 일본은 중학교, 고등학교거든요.

마지막으로, ‘민족주의 열풍’에 대한 언급은 K의 담론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실상 빈도가 높을 뿐, 양적으로 길지는 않다. K는 <애국가>를 안창호 작사로 기재한 세광중학교 음악교과서를 두고서 ‘애국심이 굉장히 발동했던’ 1960년대의 시대적 산물이었음을 말하며 이광수가 출간한 전기가 안창호의 ‘신격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부언한다. 다시 말해서, K의 주장에 따르면, 안창호 작사설을 주장하는 담론은 민족주의를 강조했던 사회의 분위기가 가세되어 형성되었다고 본다.

III. 결론

<애국가> 작사자에 관한 담론은 안창호 작사설, 윤치호 작사설, 공동창작설로 나뉘어 전해지고 있다. 연구진은 각 담론을 대표한다고 판단되어지는 연구자 3인과 인터뷰를 실시했고, 담론 내용을 코딩했으며 이 때 <NVivo12>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1인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터뷰 및 코딩 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특정 가설을 지지하거나 판단하고자 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담론이 존재하는 문화현상을 해석함으로써 현재인들이 어떻게 과거를 읽고자 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애국가> 작사설에 연관된 담론들을 표면화시키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대하게 정리함으로써 <애국가> 형성과정에서 무단히 노력했던 한국인의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상기하고자 하였다.

단어 및 주제의 빈도수와 맥락을 근거로 코딩한 결과, 3인의 담론에서 추출되어지는 노드는 4개로 좁혀졌으며, 그것은 안창호 작사설, 윤치호 작사설, 공동창작설,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성이었다. 우선 노드의 분포도를 도출해 본 결과, 각 담론에서 근거로 삼는 주제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단어구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각 담론에 있어서 반대 담론에 대한 반증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안창호 작사설 담론에 있어서는 ‘윤치호가 아닌 이유’가, 윤치호 작사설 담론에 있어서는 ‘안창호가 아닌 이유’가, 공동창작설 담론에 있어서는 ‘특정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중요하게 언급되어졌다. 각 노드의 특징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창호 작사설 담론의 특이점으로는 논리의 근거를 ‘인문과학적 방법’이라는 용어로 설득하려 하는데 ‘구술사’의 방법론 및 연구목적을 적용하였다고 이해하였다. 안창호 작사설 담론이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하기보다 상황적인 해석 또는 증언에 따른 구술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윤치호 작사설 담론의 특이점은 실증적 자료에 확신을 갖고 있기에 ‘인간으로서의 윤치호’에 대한 이해를 강하게 설득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윤치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확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특성은 윤치호 작사설 담론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공동창작설 담론에 있어서는 ‘오리지날리티’라는 개념을 근거로 삼는다. <무궁화가>에 있어서나, <애국가>에 있어서나 그 정서와 주제, 단어 및 표현방식이 관용적이고 공동체적이어서 특정인의 작품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무궁화가> 작사에 있어서 윤치호의 개입을, <애국가> 작사에 있어서 안창호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그 외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애국가> 작사가 담론에 있어서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성에 관한 노드가 읽혀졌던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애국가> 작사가 규명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던

1955년의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통령 이승만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 <애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에 대한 정치적인 민감함, 충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가 ‘실명’이라고 발표했던 것에 대한 이중적 해석, 윤치호의 친일에 대한 새로운 견해, 그리고 해방 이후 애국심이 강하게 불었던 196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 등이 <애국가> 작사설에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애국가> 작사설 담론이 단순한 과거 사실의 진위여부를 따지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국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정치적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독립신문』, 『신한민보』, 『태극학보』 등의 근대기 신문
- 김도훈. (2018). 애국가 작사가 관련 논쟁에 대한 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4. 241-295.
- 김연갑. (1998). **애국가 작사자 연구**. 서울: 집문당.
- 노동은. (1994). 애국가 가사는 언제, 누가 만들었나. **역사비평**, 27. 16-45.
- 박대현. (2015).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애국가 작사 미스터리>의 논쟁에 대한 고찰. **근대서지**, 11, 469-496.
- 안용환. (2016). **독립과 건국을 이룩한 안창호 애국가 작사**. 서울: 청미디어.
- 윤정경. (2015).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시상(詩想)과 도산 안창호** (증보판). 서울: 흥사단.
- 이명화. (1999). 애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 **실학사상연구**, 10·11. 637-667.
- 이용기. (2009). 역사학, 구술사를 만나다-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본 구술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 71. 291-319.
- 장사훈. (1974). [2] **애국가고, 여명의 동서음악**. 서울: 보진재. 225-286.
- 정혜경. (2015). 구술사: 기록에서 역사로. **한일민족문제연구**, 28. 229-262.
- 함한희. (2010). 구술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구술사연구**, 1. 7-47.

ABSTRACT

A Study on Discourses of *Aeguka*

Son, Min-Jung(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Hyo-Jeong(Daejeon Dongseo Elementary School)
Namgoong Jung(Incheon Songwon Elementary School)
Park Chan-Kyo(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ak Hae-Ri(Jinnam Middle School)
An Hyun-Jee(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Yang Ko-U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k Ha-Young(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ee Go-Woo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m Sae-Rom(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o Ju-Yeo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re have been three differing discourses regarding the lyric writer of the Korean National Anthem, Aeguka: a) Chang-Ho An, b) Chi-Ho Yun, and c) collaborative writing of national leaders including An and Yun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This study, as qualitative and ethnomusicological research, interviews three researchers each of whom has been strongly insisting one of the discourses for years.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tilizing a software program, NVivo12. The coders of 11 members create four codes (=nodes) from this research, such as 'Chang-Ho An as the writer,' 'Chi-Ho Yun as the writer,' 'Collaborative writing of the Korean national leaders between 1880s and the mid-1930s,' and 'Politics of Korean modern history.' This research pursues to unravel the historical meanings and values of Aeguka as well as the people involved in the creation of the song during the Korean modernization period, rather than criticize the diverse discourses or restore the past.

Key words: discourse, National Flower Song, Chang-Ho An, National Anthem, Chi-Ho Yun

손민정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부교수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 230-3775
E-mail: mjson@knue.ac.kr

김효정
대전동서초등학교 교사
(34569)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522
Tel: (042) 630-9000
E-mail: live1029@naver.com

남궁정
인천송원초등학교 교사
(2198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1번길
Tel: (032) 830-7300
E-mail: namgungjeong@naver.com

박찬교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강사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 230-3775
E-mail: boboguy@hanmail.net

박해리
광주진남중학교 교사
(61746)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41번길
Tel: (062) 717-3410
E-mail: enjoy9175@naver.com

안현지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 박사과정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 230-3775
E-mail: ahj1508@hanmail.net

양고운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 박사과정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 230-3775
E-mail: wooni22@hanmail.net

옥하영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 석사과정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 230-3775
E-mail: h-y1015@hanmail.net

이고운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 석사과정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 230-3775
E-mail: 2kwoon@naver.com

임새롬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 박사과정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 230-3775
E-mail: beethovenian@daum.net

조주연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 석사과정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 230-3775
E-mail: wndus0414@daum.net

접 수 일: 2019년 1월 21일
수 정 일: 2019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11일